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김 일 방
(제주대학교 교수)

I. 머리말

쓰레기는 언제나 인간 삶의 흔적으로서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 다닌다. 그러기에 인류 역사는 곧 쓰레기의 역사와도 겹쳐 있다. 선사시대 사람들은 동굴 바닥에 오물을 버렸다가 공간이 비좁아지면 새로운 거처를 찾아 떠났다. 그 후 정착생활을 하게 된 인류는 오물을 땅에 묻거나 가축의 사료로 활용하면서 잔여물을 처리하는 수고를 자연에 맡겼다. 그러나 도시화가 진행되고 점점 덜 유기적으로 변해가는 잔여물 탓에 결국 자연스럽던 물질의 순환은 중단돼버렸다. 이제 잔여물은 쓰레기가 된 것이다.¹⁾

문제는 쓰레기가 문명화될수록 점점 더 불어만 간다는 사실이다. 문명화란 사회의 물질적·기술적 발전 수준이 세련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인류의 삶은 높은 수준으로 격상되었지만 거기엔 반대급부가 있었다. 쓰레기 량의 증가다. 점점 쌓여가던 쓰레기더미는 생산, 소비, 폐기의 순환 주기가 짧아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왔다. 물밑 듯이 쏟아지는 쓰레기야말로 이 시대 최대 현안 중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대한민국 역시 예외이지 않다. 목하 대한민국은 쓰레기 대란의 와중에 있다. 전국에 쌓여 있는 쓰레기 규모는 120만 3,000톤에 이르며, ‘불법투기 쓰레기’ 야적장만 235곳이나 된다 한다.²⁾ 일명 ‘쓰레기 산’이라 불리는 쓰레기 더미가 전국에 230여 개나 널려 있다는 얘기가 있다. 이러한 쓰레기 더미는 급기야 세계적 뉴스거리가 되기도 했다. 2019년 3월 CNN이 “한국의 플라스틱 문제는 엉망진창이다”라는 리포트 제목 하에 경북 의성의 쓰레기 산을 보도한 것이다. 국내의 쓰레기 문제가 외신까지 주목할 정도이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깨닫게 해주고도 남는다. 여전히 대한민국 곳곳에 산재하는 쓰레기 산은 일인당 132.7kg(2015년 기준)이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초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국내 쓰레기 산 문제가 크게 부각된 것은 세계 최대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수입 중단을 선언(2018. 1)하면서부터다. 이에 한국은 공여지책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다른 동남아국가에 쓰레기 수출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유독 재활용되지 않는 한국산 플라스틱 폐기물은 동남아국가에서도 처치 곤란으로 취급되는 수가 많다. 2018년

1) 카트린 드 실기, 『쓰레기, 문명의 그림자』, 이은잔·조은미 옮김(서울: 따비, 2014), 22-23쪽 참조.

2) Ohmy News, 2019. 7. 2.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으로 수출된 불법 쓰레기가 현지 시민단체에 의해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 불법 쓰레기는 반송 처리되었고, 확인해본 바 그 진원지는 제주도임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이는 제주도가 늘 외쳐온 ‘청정과 공존’의 슬로건에도 위배됨은 물론 제주도민의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입힌 사건이었다. ‘청정과 공존’, ‘카본 프리 아일랜드’ 등을 내세우며 국내의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환경정책면에선 앞서나가는 줄 알았으나 실상은 정반대였던 것이다.

제주도의 무책임한 폐기물 처리 방식을 보면서 드는 깊은 의심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제주도가 역점과제로 시행해오고 있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관련 문제다. 시행된 지 2년 11개월을 맞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는 그 동안 많은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묵묵히 이행해온 시민들 덕에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상황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쓰레기 불법 수출’의 범인이 제주도라는 소식은 도민들을 아연실색케 할 뿐이었다. 도민들에게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엄격히 이행하도록 요구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제주도는 오히려 쓰레기 불법 수출을 방치했다는 사실이 도민들로 하여금 배신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앞뒤가 다른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제주도의 행위는 폐기물 관리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라 판단된다. 이제 우리는 제주도의 폐기물 관리 정책의 문제를 진단하고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할 시점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의도에서 이 글은 한림읍의 사례를 중심으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시행 배경

제주도의 요일별 배출제는 2016년 12월 1일부로 제주시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당시 이 제도의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을 보면 그 시행 배경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 급증으로 처리시설 용량 한계점 초과 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직면함에 따라 가정에서부터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나가기 위해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³⁾

위 내용에서 보다시피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들을 들어보면 이러하다.

첫째는 클린하우스 넘침 현상뿐만 아니라 해안 및 관광지에서의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역시 급증해왔다는 점이다. 클린하우스에 생활쓰레기가 넘쳐나 악취를 풍기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현상이 비일비재함은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경험했던 바일 것이다. 무단 투기 적발

3) 제주시 생활환경과 새소식,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범운영 안내」(2016.11.24).

건수는 2011년 429건에서 2016년 1,047건으로 618건이나 증가했는데⁴⁾ 이는 무단 투기 행위 자체에 대한 의식조차 없음을 반증해주는 결과가 아닌가 여겨진다.

둘째는 폐기물 포화상태이다. 지금 제주는 이미 만적된 쓰레기 매립장이 20곳, 사용 중인 매립장이 9곳이 있으나 이 9곳도 만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소각장은 하루 종일 가동해도 용량 초과로 근처 야적장에는 소각용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하수종말처리장 역시 처리 능력의 한계로 오폐수가 걸러지지 않은 채 바다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는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1995년)된 지 20여 년, 클린하우스제도가 도입(2006년)된 지 10여 년이 지나고 있으나 종량제 봉투에 일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현상이 여전히 만연하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일반 쓰레기를 재활용 쓰레기로 배출하거나 종량제 봉투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무단 투기 행위 등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⁵⁾

위들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진 데는 나름의 원인이 있다. 그중 가장 많이 주목받는 것이 유입인구 및 관광객의 증가이다. 먼저 유입인구의 추세를 살펴보도록 한다(<표 1> 참조).

<표 1> 연도별 인구 추이(단위 : 명, %)⁶⁾

구 분	인 구			전년대비 증감			인구성장률		
	전 체	한국인	외국인	전 체	한국인	외국인	전 체	한국인	외국인
2018	692,032	667,191	24,841	13,260	10,108	3,152	2.0	1.5	14.5
2017	678,772	657,083	21,689	17,582	15,486	2,096	2.7	2.4	10.7
2016	661,190	641,597	19,593	19,835	17,202	2,633	3.1	2.8	15.5
2015	641,355	624,395	16,960	19,805	17,049	2,756	3.2	2.8	19.4
2014	621,550	607,346	14,204	16,880	13,540	3,340	2.8	2.3	30.7
2013	604,670	593,806	10,864	12,221	10,093	2,128	2.1	1.7	24.4
2012	592,449	583,713	8,736	9,165	7,557	1,608	1.6	1.3	22.6
2011	583,284	576,156	7,128	6,097	4,901	1,196	1.1	0.9	20.2

제주도의 인구가 50만 5,000명으로 50만 시대를 돌파한 것이 1987년이었고, 이 50만 명대를 꾸준히 유지해오다 60만 명 시대를 연 것이 2013년 8월이었다. 그 후 인구는 급증하여 2018년 현재 69만 2,032명에 이르렀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50만 명에서 60만

4) 김은수,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통권 121호, 84쪽 참조.

5) 같은 글, 78쪽 참조.

6) 제주특별자치도, 『2019주요행정통계』(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2019), 5쪽.

명에 이르는 데 소요된 기간이 26년이었던데 비해 60만 명에서 69만 명에 이르는 데 소요된 기간은 5년 정도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그야말로 급등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인구 추이에서 보다시피 2015년을 기점으로 매년 증가가 둔화되는 추세이긴 하나 전국적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어서 관광객 유입 추세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표 2> 참조).

<표 2> 입도 관광객 수(단위 : 명, %)⁷⁾

구 분		2011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관 광 객	계	8,740,976	10,851,265	12,273,917	13,664,395	15,882,980	14,753,236	14,313,961
	(증감률)	(15.3)	(12.0)	(13.1)	(11.3)	(16.0)	(-6.9)	(-3.0)
	내국인	7,665,339	8,517,417	8,945,601	11,040,135	12,249,959	13,522,632	13,089,129
	외국인	1,045,637	2,333,848	3,328,316	2,624,260	3,603,021	1,230,604	1,224,832

<표 2>에서 보다시피 입도 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해오다 2016년에 사상 최초로 1,580여만 명을 돌파하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던 관광객 수가 2017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이는 사드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줄어든 효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여전히 관광객 수가 1,40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처럼 유입 인구 및 입도 관광객 수의 급등세는 쓰레기 발생량과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폐기물 발생량 현황(단위 : 톤/일)⁸⁾

구 분	생활 폐기물			
	소 계	재활용	소 각	매 립
2011년	764.7	410.0	198.1	156.6
2013년	984.2	516.2	273.4	194.6
2014년	976.2	547.1	179.3	249.8
2015년	1,162.3	657.2	226.5	278.6
2016년	1,305.3	697.3	304.6	303.4
2017년	1,312.1	748.0	319.4	244.7
2018년 ^P	1,311.4	769.5	332.2	209.7

주 : 2018년도 자료는 잠정치임

7) 같은 책, 80쪽.

8) 같은 책, 170쪽.

<표 3>에서 보다시피 생활 쓰레기 발생량이 꾸준히 증가해오다 일일 배출량이 1,300톤을 넘은 것이 2016년부터이다. 2016, 17, 18년 각각 1,300톤을 넘어설 정도로 사상 최대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사실들에서 유입인구 및 관광객 수의 급등세가 과다 쓰레기 발생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한 판단으로 간주된다.

제주도의 쓰레기 발생량이 급등한 또 한 가지 원인으로는 도민들의 시민의식도 빼놓을 수 없으리라 본다. 그리고 이렇게 쓰레기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수준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클린하우스 제도 운영상의 미비에서 오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기존의 클린하우스 제도는 도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365일 24시간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하는 완전 자유배출제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오히려 방만한 무단 투기 행위, 혼합배출 행위 등은 물론이고 클린하우스 수거함의 세척·관리 등의 어려움도 초래하였다.⁹⁾ 또한 쓰레기는 수거함에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버려도 무방한 것으로 여기게 함으로써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한 아무런 반성적 의식도 낳지 못했다. 그 결과 매립장 포화, 소각장 용량 초과 현상 등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2.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시행 과정

제주도는 2010년대 들어 유입인구 및 관광객의 급증으로 쓰레기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클린하우스 넘침 현상, 해안 및 관광지를 비롯한 곳곳에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쓰레기 매립장 포화 등 여러 문제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2016년 8월 4일 ~ 10일까지 추천과 공모를 통해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100인 모임을 18일 최종 구성하였다. 이 모임의 명칭은 ‘제주시 범시민 쓰레기 줄이기 실천과제 선정 100인 모임’이었고, 공식출범일은 8월 31일이었다.¹⁰⁾

100인 모임은 소모임, 원탁회의, 공개토론회 등 여러 차례의 회의와 토론을 거쳐 10월 18일에 최종토론회를 마쳤고 10월 27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쓰레기 감축을 위한 최종 실천 아젠다를 발표하였다. 그 아젠다의 내용은 정책과제 12건, 행정 제안의제 5건, 실천과제 12건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¹¹⁾

제주도는 이러한 100인 모임의 제안사항을 토대로 1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하였고,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와 배출시간 조정’을 발표하여¹²⁾ 제주시는 12월 1일부로, 서귀포시는 2017년 1월 1일부로 시범운영에 들어가도록 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하고는 요일당 제품군 한 가지씩 오후 6시에서 자정까지 배출할 수 있게 기존의 자유배출제를 요일별로 배출 가능한 쓰레기와 시간을 제한한 것이다.

9) 김은수, 앞의 글, 78쪽 참조.

10) 제주의 소리, 2016, 8. 31.

11) 뉴시스, 2016. 10. 27.

12) 당시 제주도의 보도자료(2016. 11. 2)를 보면 ‘홍보기간: 2016. 10. 24 - 11. 30’, ‘시범운영기간: 2016. 12. 1 - 12. 31’, ‘배출시간은 18:00 - 24:00’로 제시돼 있었다.

시범 운영된 지 일주일 만에 야간업소와 급식소 등에서 영업시간에 맞지 않는 배출시간이라며 조정 요구가 빗발침에 따라 배출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로 12월 9일부터 조정되었다. 시범 운영 이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더니 시행 이후에는 전체 민원량의 80%가 넘을 만큼 관련 민원이 폭주하였던 것이다.¹³⁾ 급기야 이 정책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이 ‘쓰레기 정책에 분노하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구성하고 2017년 1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제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의 회견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⁴⁾

요일별 배출제는 쓰레기를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일본의 몇몇 정책을 그대로 베낀 것이다.

쓰레기 줄이기 100인 모임 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이 됐다 하는데 우린 들어본 적 없다. 의견수렴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요일별 배출제로 집안이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다. 행정은 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발생하는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행정이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고 시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낙후된 시스템을 손보지 않고 시민들만 뒹달하는 상황이다. 시민 불편만 강요하는 요일별 배출제는 하루빨리 폐기돼야 한다.

이어서 이 시민 모임은 1월 13일, 이 날을 ‘제주시 쓰레기 정책 시민저항의 날’로 선포하고 제주시청 인근 분리수거함에 ‘쓰레기 산’ 퍼포먼스를 벌이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¹⁵⁾

제주도는 이러한 시민들의 많은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마냥 눈감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이에 제주도는 부랴부랴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급조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17년 2월 24일에는 제주시민 토론회, 27일에는 서귀포시 시민토론회, 3월 2일에는 제주시에서 종합토론회를 열었던 것이다.¹⁶⁾ 세 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토대로 제주도는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로 개선하여 3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주 내용은 배출 요인이 주1회(종이류, 캔·고철류, 병류, 비닐류, 불연성)와 주2회(플라스틱, 스티로폼)였던 배출횟수를 종류별로 2~3회로 늘림으로써 주민들이 집안에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¹⁷⁾

이처럼 요일별 배출제는 시범 운영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배출 시간대는 물론 명칭까지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행돼오다 시범운영기간(2016. 12. 1 ~ 2017. 6. 30)을

13) Ohmy News, 2016. 12. 23.

14) 제주의 소리, 2017. 1. 6.

15) Ohmy News, 2017. 1. 14.

16) 제주의 소리, 2017. 3. 2.

17) 제주의 소리, 2017. 3. 6.

마무리하게 된다. 이 기간이 끝나면서 요일별 배출제는 2017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이루어졌다. 본격 시행이라는 말은 이 제도를 미준수할 시 법적 제재력이 발휘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됨과 동시에 곧장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무리이므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가졌다. 이 기간 동안은 안내와 홍보에 집중하고 동시에 위반 시에는 계고장 발부를 통해 준수를 권고하며 10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해나갔던 것이다.¹⁸⁾

2017년 12월 20일, 제주도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 1주년 토론회’를 열어 여러 과란중첩이 있었지만 도민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 꾸준히 증가하던 쓰레기 량이 매립 량과 소각 량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재활용품은 증가했다는 것이다.¹⁹⁾

이러한 제주도의 발표와는 달리 여전히 한견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불만과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제주도는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다시금 요일별 배출제에 수정을 가했다. 2018년 4월 1일부터 대폭 손질된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한다고 밝힌 것이다. 배출시간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활용품 중 병류, 스티로폼, 캔·고철류는 매일 배출, 플라스틱과 종이류는 격일제 배출로 바꾼 것이 개선안의 주 내용이었다.²⁰⁾

이렇게 바뀌어 시행되던 요일별 배출제는 2018년 6·13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일부 도지사후보는 이 제도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가 하면 모 후보는 이 제도가말로 ‘대도민 사기극’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사기극’이라 주장하는 근거는 가연성과 불연성 쓰레기가 혼합된 채 소각됨으로써 시민들이 애쓰게 요일별로 분리 배출한 쓰레기가 정작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었다.²¹⁾ 하지만 현 도지사가 재선출되면서 요일별 배출제는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고, 2018년 12월 18일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 2주년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 보고회에 따르면 그 간의 생활쓰레기 처리 상황을 분석한 결과 매립 량은 줄고 재활용품 수거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 배출제의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 폐기물 매립 량은 22% 감소한 반면 재활용품 수거량은 14% 증가하였다는 것이다.²²⁾

하지만 이러한 제주도의 발표와는 달리 이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흘렀음에도 정착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쓰레기 발생량은 반으로 재활용품은 70% 이상’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세웠으나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재활용률은 소폭 느는데 그쳐 아직도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²³⁾

18) 제주의 소리, 2017. 6. 29.

19) 제주의 소리, 2017. 12. 20.

20) 제주의 소리, 2018. 3. 22.

21) 뉴스제주, 2018. 6. 1.

22) 헤드라인 제주, 2018. 12. 18.

23) 연합뉴스, 2018. 12. 1.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조사 기간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시 한림읍 주민들이다. 한림읍은 총 21개리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중 비양리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비양리는 독립된 섬마을로 거기까지 오가는 과정은 물론 설문 조사의 현실적 어려움 탓에 제외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힌다. 한림읍의 총 세대수는 10,521세대인데²⁴⁾ 이 중 약 3%인 315세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각 세대별로 직접 방문하여 조사에 임하였다. 그리고 연구 대상이 어느 한 마을에 집중되지 않고 모든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정된 315세대는 각 마을의 세대수 대비 균등하게 배분하였다. 설문지 회수는 연구 대상자인 315세대로부터 전부 회수했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40부는 제외하여 총 275부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설문조사는 2018년 8월 20일부터 9월 3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2. 검사 도구 및 자료 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연구방법은 설문지법이다. 설문지는 크게 네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네 영역이란 (1) 쓰레기 문제에 관한 인식, (2)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도에 대한 인식 및 시행 실태, (3)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도에 대한 만족도 및 유용성, (4)개선방안 등을 가리킨다. (1), (2), (3)을 통해선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실행실태, 만족도 등을 살펴보고 (4)를 통해선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각 영역별로 작성한 구체적인 문항 내용은 <표 4>와 같다.

설문지를 통하여 얻은 결과에 대해선 SPSS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모든 문항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답변을 퍼센트로 계산하여 나타냈다.

24) 한림읍행정복지센터 <http://www.jeju.go.kr/town/hanlim.do>(2018년 8월) 참조.

<표 4> 설문지 문항 내용

영역	문항 내용
쓰레기 문제에 관한 인식	1.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 상황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2. 제주도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평소 가정에서 쓰레기 분리 배출은 잘하고 있는가?
	4. 제주도의 쓰레기 처리 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가?
	5. 재활용품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재활용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도에 대한 인식 및 시행 실태	1.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대해 알고 있는가?
	2. 요일별 분리 배출 품목에 대해 알고 있는가?
	3. 요일별 분리 배출 시간대를 알고 있는가?
	4. 귀하께서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요일별 배출 실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는가?
	5. 요일별 배출제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6. 재활용품 분리 배출함을 이용해본 소감은 어떠한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도에 대한 만족도 및 유용성	1.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대해 만족하는가?
	2-1.(①, ②번 선택자) 요일별 배출제에 대해 만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2.(④, ⑤번 선택자) 요일별 배출제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요일별 배출제가 제주도 쓰레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3-1 (④, ⑤번 선택자) 도움이 안 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4. 요일별 배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개선방안	1. 요일별 배출제의 성공을 위해 우리 지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3. 주민들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4. 배출 시간대를 조정한다면 어느 시간대를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가?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쓰레기 문제에 관한 인식

1)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 상황

<표 5> 제주도 쓰레기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단위: 명, %)

매우 심각하다	79(28.7)
심각하다	162(58.9)
심각하지 않다	28(10.2)
전혀 심각하지 않다	6(2.2)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 상황을 묻는 질문에 ‘심각하다’거나 ‘매우 심각하다’는 반응이 87.6%(241명)였다. 읍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말해주는 결과라 본다. 이러한 결과는 제주도가 쓰레기 문제를 최대 현안 중의 하나로 다뤄나가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2) 쓰레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요건

<표 6> 제주도 쓰레기 문제 해결에 가장 먼저 필요한 요건(단위: 명, %)

시민들의 의식 개선	98(35.6)
요일별 배출제의 빠른 정착	35(12.7)
관광객 환경세 부과	64(23.3)
제주도의 인구 및 관광객 규모 축소	20(7.3)
더 많은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확충	24(8.7)
쓰레기 감량 교육의 강화	32(11.6)
기타	2(0.7)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요건에 대해선 시민들의 의식 개선(35.6%), 관광객 환경세 부과(23.3%), 요일별 배출제의 빠른 정착(12.7%), 쓰레기 감량 교육의 강화(11.6%) 순으로 응답하였다. 시민들의 의식 개선, 요일별 배출제의 정착, 쓰레기 감량 교육 등의 항목에 약 60%의 반응을 보인 것은 쓰레기 관련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해준다고 하겠다. 그리고 관광객 환경세 부과에 응답한 23.3%의 반응은 제주의 쓰레기 발생 원인이 관광객에도 있음을 말해주는 결과로 판단된다.

3) 쓰레기 분리 배출 실태

<표 7> 가정에서의 쓰레기 분리 배출 실태(단위: 명, %)

매우 잘한다	71(25.8)
잘한다	168(61.1)
잘하지 않는다	33(12.0)
전혀 잘하지 않는다	3(1.1)

평소 가정에서 쓰레기 분리 배출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86.9%(239명)가 잘하거나 매우 잘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그 동안 시행해온 분리 배출제도가 이미 뿌리내렸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4) 제주도의 쓰레기 처리 과정

<표 8> 제주도의 쓰레기 처리 과정에 대한 인지 정도(단위: 명, %)

잘 알고 있다	47(17.1)
알고 있다	127(46.2)
잘 모른다	85(30.9)
전혀 잘 모른다	16(5.8)

제주도의 쓰레기 처리 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 63.3%(174명)가 알고 있거나 잘 알고 있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른다는 응답은 36.7%(101명)였다.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면 수거차량이 수거하여 매립장으로 옮기는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질문은 이 수준을 넘어서 매립장으로 옮겨진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묻는 것이다. 잘 모른다는 반응이 36.7%인 것은 이 부분에 관한 교육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5) 재활용품의 최종적 처리 방식

<표 9> 재활용품의 재활용 처리방식에 대한 인지 정도(단위: 명, %)

잘 알고 있다	19(6.9)
알고 있다	105(38.2)
잘 모른다	133(48.4)
전혀 잘 모른다	18(6.5)

우리가 분리 배출하는 재활용품이 최종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재활용되고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 알고 있다는 반응이 45.1%(124명)인 반면, 잘 모른다는 반응이 54.9%(151명)였다. 우리가 분리 배출하는 재활용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재활용되고 있고, 환경문제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안다면 분리 배출에 더 많은 정성을 쏟을 수 있을 것이다. 아쉽게도 잘 모른다는 반응이 많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환경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도에 대한 인식 및 시행 실태

1)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도 인지

<표 10>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단위: 명, %)

잘 알고 있다	91(33.1)
알고 있다	151(54.9)
잘 모른다	30(10.9)
전혀 잘 모른다	3(1.1)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도에 관해 알고 있다는 반응이 88%(242명)였다. 이는 이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째를 맞으면서 그 동안 관에서의 제도 및 홍보 효과가 큰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요일별 배출 품목

<표 11> 요일별 배출품목에 대한 인지 정도(단위: 명, %)

잘 알고 있다	82(29.8)
알고 있다	154(56.0)
잘 모른다	36(13.1)
전혀 잘 모른다	3(1.1)

요일별 분리 배출 품목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선 알고 있다는 반응이 85.8%(236명), 잘 모른다는 반응이 14.2%(39명)였다. 이는 요일별 배출 품목을 조정한 효과로 보인다. 제주도는 요일별 배출 품목이 복잡하여 암기하기에 불편하다는 민원을 수용하여 2018년 4월 1일자로 격일 배출 품목과 매일 배출 품목으로 변경하여 발표하였다. 이러한 수정 발표가 요일별 배출 품목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3) 요일별 분리 배출 시간대

<표 12> 요일별 분리 배출 시간대 인지 정도(단위: 명, %)

잘 알고 있다	79(28.7)
알고 있다	149(54.2)
잘 모른다	50(18.2)
전혀 잘 모른다	4(1.5)

분리 배출 시간대에 관해선 알고 있다는 반응이 82.9%(228명), 잘 모른다는 반응이 19.6%(54명)였다. 이 또한 제주도의 계도와 홍보 노력 효과로 판단되며 이는 매우 바람직한 결과로 해석된다.

4) 요일별 배출 실태

<표 13> 지역주민의 요일별 배출 실태(단위: 명, %)

매우 잘 되고 있다	14(5.1)
잘 되고 있다	129(46.9)
잘 안 되고 있다	126(45.8)
전혀 안 되고 있다.	6(2.2)

거주 지역의 요일별 배출 실태는 어떤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이 52.0%(143명), 잘 안 되고 있다는 응답이 48.0%(132명)였다. 요일별 배출 품목과 시간대에 관해선 대부분이 알고 있다는 긍정적 답변을 보였으나, 실질적 실행 실태에 대해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물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요일별 배출제는 실행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해선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요일별 배출제도 실행이 부진한 이유

<표 14> 요일별 배출제도 실행이 잘 안 되는 이유(단위: 명, %)

주민의식 부족	103(37.5)
잘 몰라서	67(24.4)
복잡한 배출 품목	80(29.1)
멀어서	19(6.9)
기타	6(2.2)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도의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 대해선 ‘주민의식 부족’ 37.5%(103명), ‘복잡한 배출 품목’ 29.1%(80명), ‘잘 몰라서’ 24.4%(67명), ‘멀어서’ 6.9%(1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주민의식 부족은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 해결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요소로도 지적된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재활용품 분리 배출함 이용 소감

<표 15> 재활용품 분리 배출함을 이용해본 소감(단위: 명, %)

관리가 잘 되어 깨끗하다	54(19.6)
비교적 편리하다	105(38.2)
멀어서 불편하다	61(22.2)
악취가 나고 불결하다	44(16.0)
기타	11(4.0)

재활용품 분리 배출함을 이용해본 소감을 묻는 설문에는 ‘편리하다’ 38.2%(105), ‘멀어서 불편하다’ 22.2%(61명), ‘관리가 잘 되어 깨끗하다’ 19.6%(54명), ‘악취가 나고 불결하다’ 16.0%(44명) 순으로 나타났다. 편리함과 더불어 깨끗하다는 긍정적 평가에 57.8%(159명)가 반응한 것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나름대로 성공한 정책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불편하다’와 ‘악취가 나고 불결하다’는 반응도 38.2%(105)가 나온 것은 이 제도가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도의 만족도 및 유용성

1)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도에 대한 만족도

<표 16>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도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단위: 명, %)

매우 만족한다	24(8.7)
만족한다	133(48.4)
불만족스럽다	111(40.4)
매우 불만족스럽다	7(2.5)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도 자체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는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다는 반응에 57.1%(157명),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하다는 반응에 42.9%(118명)가 답하

였다. 과반수 주민들이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다행이나 아직도 많은 수의 주민들이 불만족스럽다는 것은 이 제도에 여전히 어떠한 문제점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만족하는 이유(만족한다에 응답한 대상자)

<표 17>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도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단위: 명, %)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환경이 개선되어서	16(10.1)
시행 전보다 클린하우스가 깨끗해져서	69(43.4)
시행 전보다 수거되는 재활용품이 증가해서	17(10.7)
쓰레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서	40(25.2)
거리의 미관이 깨끗해져서	14(8.8)
기타	3(1.9)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관해 만족하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는 ‘클린하우스가 깨끗해져서’ 43.4%(69명), ‘쓰레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서’ 25.2%(40명), ‘시행 전보다 수거되는 재활용품이 증가해서’ 10.7%(17명),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환경이 개선되어서’ 10.1%(16명), ‘거리의 미관이 깨끗해져서’ 8.8%(14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가장 만족스런 효과는 ‘청결’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더불어 쓰레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의 변화까지 초래했다는 것은 이 제도의 지속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3) 만족하지 않는 이유(불만족스럽다에 응답한 대상자)

<표 18>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도가 불만족스러운 이유(단위: 명, %)

요일별 배출 품목 암기가 어려워서	8(10.8)
가정 내 보관 장소가 부족해서	27(36.5)
CCTV 감시가 부담되어서	3(4.1)
번거롭고 귀찮아서	17(23.0)
배출 시간의 제한 때문에	16(21.6)
기타	3(4.1)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이유를 묻는 설문에는 ‘가정 내 보관 장소가 부족해서’ 36.5%(27명), ‘번거롭고 귀찮아서’ 23.0%(17명), ‘배출 시간의 제한 때문에’ 21.6%(16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가정 내 보관 장소가 부족하다는 이유는 이 제도의 시행 초기부터 제기된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재활용품 도움 센터’다. 이 문제는 도움 센터가 더 증설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배출 시간대 문제 역시 예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으로 이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여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도의 영향

<표 19>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도가 제주도 쓰레기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단위: 명, %)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50(18.2)
조금 도움이 되고 있다	118(42.9)
그저 그렇다	86(31.3)
도움이 안 되고 있다	14(5.1)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	7(2.5)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는 ‘도움이 되고 있다’에 61.1%(158명), ‘그저 그렇다’에 31.3%(86명), ‘도움이 안 되고 있다’에 7.6%(21명)가 응답하였다. 그저 그렇다거나 도움이 안 된다는 반응(38.6%)에 비해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반응이 높은 것은 이 제도가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 해결에 나름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말해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5) 도움이 안 되는 이유(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

<표 20>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도가 제주도 쓰레기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이유(단위: 명, %)

관광객의 쓰레기가 넘쳐나서	9(23.7)
쓰레기 총량에는 변화가 없어서	14(36.8)
홍보가 부족해서	2(5.3)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부족해서	10(26.3)
인구가 너무 불어나서	3(7.9)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를 상대로 그 이유를 묻는 설문에는 ‘쓰레기 총량에는 변화가 없어서’ 36.8%(14명),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부족해서’ 26.3%(10명), ‘관광객의 쓰레기가 넘쳐나서’ 23.7%(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제주도 쓰레기 문제의 핵심은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배출이다. 요일별 배출제가 성공적이라 해도 이것이 쓰레기의 총량에는 어떠한 변화를 초래할 수 없기에 쓰레기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리고 과잉배출에는 불어난 관광객의 탓도 큰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도의 필요성

<표 21>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도의 필요성(단위: 명, %)

꼭 필요하다	53(19.3)
필요하다	153(55.6)
필요하지 않다	63(22.9)
전혀 필요하지 않다	6(2.2)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에는 ‘필요하다’가 74.9%(206명), ‘필요하지 않다’가 25.1%(69명)의 반응을 보였다. 다수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제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지 및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4. 개선방안

1)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도의 성공을 위한 요소

<표 22>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도의 성공을 위해 우리 지역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요건(단위: 명, %)

배출제도의 필요성 홍보	82(29.8)
한림읍과 지역주민들 간의 소통을 통한 지속적인 참여 자세 독려	88(32.0)
배출 시간대 조정	71(25.8)
흰색 종량제 봉투 사용의 강화	29(10.5)
기타	5(1.8)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한림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요건을 묻는 설문에 대해선 ‘한림읍과 지역주민들 간의 소통을 통한 지속적인 참여 자세 독려’ 32.0%(88명), ‘배출제도의 필요성 홍보’ 29.8%(82명), ‘배출 시간대 조정’ 25.8%(71명), ‘흰색 종량제 봉투 사용의 강화’ 10.5%(2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요일별 배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관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참여 자세를 독려하거나 이 제도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주체가 관인 만큼 앞으로 한림읍에서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도의 홍보 방식

<표 23>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도의 가장 효과적인 홍보 방식

대중매체(TV, 라디오, 신문) 활용	99(36.0)
인터넷 활용	22(8.0)
마을마다 플래카드 설치 및 홍보자료 활용	112(40.7)
교육 및 견학	35(12.7)
기타	7(2.5)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을 묻는 설문에는 ‘마을마다 플래카드 설치 및 홍보자료 활용’ 40.7%(112명), ‘대중매체 활용’ 36.0%(99명), ‘교육 및 견학’ 12.7%(35명), ‘인터넷 활용’ 8.0%(2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림읍에는 고령자들이 많은 만큼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홍보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주민 참여 유도 방안

<표 24> 주민들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단위: 명, %)

담당 공무원의 정기적인 마을 방문 및 참여 독려	53(19.3)
한림읍에서 우수 마을 지정하여 표창하기	89(32.4)
한림읍에서 정기적인 쓰레기 배출 관련 교육 실시	89(32.4)
요일별 배출제도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 타 지역의 사례 소개	35(12.7)
기타	9(3.3)

요일별 배출제에 주민들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설문에는 ‘한림읍에서 우수 마을 지정하여 표창하기’ 32.4%(89명), ‘한림읍에서 정기적인 쓰레기 배출 관련 교육 실시’ 32.4%(89명), ‘담당 공무원의 정기적인 마을 방문 및 참여 독려’ 19.3%(53명), ‘요일별 배출제도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 타 지역의 사례 소개’ 12.7%(35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주민들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우수 마을을 지정하여 표창하거나 정기적인 쓰레기 배출 교육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4) 배출 시간대 조정 방안

<표 25> 배출 시간대 조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단위: 명, %)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	69(25.1)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40(14.5)
오후 1시부터 새벽 2시	62(22.5)
오후 3시부터 새벽 4시	75(27.3)
기타	29(10.5)

요일별 배출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요건으로 배출 시간대 조정이 있었던 바 이에 관하여 설문해보았다. 그 결과는 ‘오후 3시부터 새벽 4시’ 27.3%(75명),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 25.1%(69명), ‘오후 1시부터 새벽 2시’ 22.5%(62명),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14.5%(40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현행 배출 시간대에 가장 많은 반응이 나온 것은 그동안 이 제도가 시행돼오는 가운데 이미 여기에 적응됐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러나 압도적 다수는 시간대 조정을 원하는 만큼 이에 대해선 별도의 광역적 여론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V. 종합적 논의와 개선방안

1. 종합적 논의

한림읍민 대다수는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한림읍민뿐만 아니라 아마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바일 것이다. 쓰레기난, 교통난, 물지마식 개발난, 이른바 3난이라 불리는 문제가 최근 들어 제주도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들이기 때문이다. 쓰레기 문제 해결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요건으로는 도민 의식 개선

과 관광객 환경세 부과를 꾀한 것을 보면 도민 의식 개선을 위한 새로운 조치가 요구돼 보이며, 환경세 부과 방안도 다시금 심사숙고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더불어 한림읍민들 중에는 자신들이 분리 배출한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다. 이는 환경 교육의 필요성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다. 우리가 애써 분리 배출한 쓰레기 및 재활용품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률을 제고하는 데 큰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묻지마식 분리 배출 행위와 내가 왜 분리 배출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자각하고 하는 행위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자가 맹목적·타율적이라면 후자는 합리적·자율적이다. 합리적·자율적 행위야말로 일관적이면서 안정적인 태도를 담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이론적 교육보다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림읍민들은 요일별 배출제는 물론 배출 품목 및 배출 시간대에 대해서도 대부분 알고 있었다. 이는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약 3년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이뤄진 홍보와 계도 덕분에 여겨진다. 하지만 요일별 배출 실태에 대해선 약 반 정도가 ‘잘 안 되고 있다’에 반응한 것으로 보아 이 제도의 실질적 실행률을 높이는 새로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요일별 배출제의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로 ‘주민의식 부족’, ‘요일별 복잡한 배출품목’, ‘잘 몰라서’ 순으로 응답한 것을 볼 때, 이 또한 요일별 배출을 왜 해야 하는가 하는 근원적 물음에서부터 주도면밀한 환경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결과로 여겨진다.

요일별 배출제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가 57.1%, 불만족한다가 42.9%라는 결과가 나왔다. 만족한다고 응답한 읍민들은 그 이유로 ‘시행 전보다 클린하우스가 깨끗해져서’와 ‘쓰레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돼서’를 꼽았는데 이는 요일별 배출제 시행 이전의 자유배출제 방식에 비해 차별적인 효과가 분명히 났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불만족스럽다고 평가한 읍민들은 그 이유로 ‘가정 내 보관 장소가 부족해서’, ‘번거롭고 귀찮아서’, ‘배출시간의 제한 때문에’ 순으로 응답하였다. 요일별 배출제가 격일제로 많이 완화되긴 했으나 읍지역 거주민들 중에는 자영업과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많아 생업에 바쁜 탓으로 규정에 따라 분리 배출하기가 힘든 점이 있고, 따라서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요일별 배출제의 만족도는 도시지역에 비해 비도시지역이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도시지역의 경우는 쓰레기 수거함이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재활용도움센터²⁵⁾ 역시 아직은 매우 드물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당국은 비도시지역 주민들의 불만 사항에 대해 좀 더 깊은 관심과 민감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요일별 배출제가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긍정적 반응(61.1%)이 부정적 반응(38.9%)보다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요일별 배출제의 필요성을 묻는

25) 배출요일, 시간에 관계없이 수시로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배출할 수 있으나 상가나 유흥주점 등이 밀집한 지역은 24시간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9년 8월 1일을 기점으로 제주시 31개소, 서귀포시 24개소 총 55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170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제주도 환경보전국 보도자료(2019. 8. 7), 2019년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운영 현황 참조.

질문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긍정적 반응이 74.9%,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적 반응이 25.1%를 보여 요일별 배출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갈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부정적 반응을 보인 이들은 그 이유로 ‘쓰레기 총량에는 변화가 없어서’, ‘주민의 적극적 참여 의지가 부족해서’, ‘관광객의 쓰레기가 많아서’ 순으로 응답하였다. 제주도 쓰레기 대란의 핵심은 과잉배출이다. 요일별 배출제가 성공적이라 해도 이것이 쓰레기의 총량에는 특별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으리라 본다. 물론 이 제도를 통해 재활용률은 높여나갈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과 쓰레기를 감량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쓰레기의 감량을 위해선 별도의 또 다른 정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간주된다.

요일별 배출제의 성공을 위해 한림읍 지역에서 해야 할 가장 우선적 요건들에 대해선 ‘한림읍과 지역주민 간 의사소통’, ‘배출제도의 필요성 홍보’, ‘배출시간대 조정’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요일별 배출제의 시행 전·후를 막론하고 한림읍과 지역주민 간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부재했음을 말해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애초부터 요일별 배출제는 이 제도의 시행을 놓고 행정당국과 도민 간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결여됐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었다. 전형적인 ‘위에서 아래로’의 하향식 방식으로 도민 전체를 밀어붙이려는 전 근대적 절차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한림읍에선 지역주민들에게 이 제도의 엄격한 시행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지역주민의 불편·불만 사항들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대민 서비스 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

한림읍민들은 요일별 배출제의 홍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방식은 ‘플래카드 설치 및 홍보자료 활용’을 제일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는 아마도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거리를 오가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행정당국에서는 요일별 배출제를 홍보할 시 인터넷과 같은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맞춤형 방식의 홍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수 마을 지정하여 표창하기’와 ‘한림읍에서 정기적인 쓰레기 배출 관련 교육 실시’를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요일별 배출제의 실행 실태가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개선하려면 새로운 동기부여 방안이 필요해보이며, 특히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선 거듭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한 마디로 간추리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요일별 배출제는 ‘필요하고 유용하긴 하나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미완의 제도’라고 규정하고 싶다.

2. 개선 방안 모색

제주도의 쓰레기 대란을 발생시킨 근본적 원인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유입인구 및 관광객의 급증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주도민의 쓰레기 의식이었다. 문제 해결책은 원인을 치유하는 데 있는 만큼 쓰레기 대란을 해결하는 첫 번째 열쇠 역시 유입인구 및 관광객 수의 조

절에 있다.

제주도에 살기 위해 이주해오는 유입인구는 막아서도 안 되고 막을 수도 없다. 하지만 관광객 수에 대한 조정은 가능하리라 본다. 현재 제주 인구 68여만 명에다 관광객 등 1일 거주 인구 약 14만 명 등 상시 거주 인구는 80여만 명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도 이 상시 거주 인구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의 총인구수는 2015년 약 64여만 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45년에는 2015년 대비 20만 명(34.2%)정도가 증가한 약 8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²⁶⁾ 따라서 관광객 수를 방치해선 안 되리라 본다. 이에 대해 대처하는 데 시급히 요청되는 것이 **환경총량제**이다. 환경총량제의 도입을 위해선 우선 제주의 환경자원 총량을 파악한 후에 그 총량이 상시 거주인구의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를 진단해야 한다. 곧 제주의 자연환경을 유지 보존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만 관광객을 수용하자는 것이다.

쓰레기 대란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두 번째 대안은 쓰레기에 대한 도민 의식 개선이다. 제주도는 오래전서부터 쓰레기 감량 정책을 펴왔고 이 또한 상당부분 순기능을 말아왔지만 도민들의 능동적 대처방안을 이끌어내기엔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프롬에 따르면 쓰레기 문제와 같은 환경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할 기술적 영약은 없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해결에 이르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 바 그것은 오로지 인간의 근본적 자세의 혁신적이고 조속한 변화에 있다고 보았다.²⁷⁾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요일별 배출제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들고 싶다.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된 지 약 3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분리 배출 자체부터 미진한 부분이 많다. 클린하우스의 길은 클린하지만 수거함 속은 여전히 클린하지 못한 무너만의 클린하우스가 현재의 모습이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를 공모하여 ‘요일별 배출제 홍보대사’로 선정하고 클린하우스별로 배치하여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과 재활용의 유용성에 관한 홍보 업무를 맡겼으면 한다.

구체적 방안으로 두 번째는 요일별 배출제 **홍보 방법의 다양화**다. 제주도 홈페이지를 보면 요일별 배출제를 홍보하는 자료들이 탑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읍면지역 주민들의 경우엔 인터넷보다 플래카드 설치와 같은 눈에 잘 띄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었다. 따라서 인터넷 이외에도 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홍보방법들을 다양하게 활용했으면 한다. 가령 달력의 요일 표기란에 해당 배출 품목을 기록하고 그 밖의 빈 공간에는 필수적 정보를 담은 **‘요일별 배출제 달력’**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세 번째는 생활쓰레기를 활용한 **문화제 행사**다. 2년 전 국립민속박물관은 프랑스 국립 유럽지중해문명박물관과 ‘쓰레기’라는 공통의 주제를 발굴하여 ‘쓰레기×사용설명서’(2017.07.19.~10.31)²⁸⁾라는 특별전을 개최한 바 있다. 그 의도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개인적 실천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이와 같이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각자

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인구변화』 (제주특별자치도, 2017),

27) 에리히 프롬, 『소유냐 존재냐』, 차경아 옮김(서울: 까치글방, 2006), 225-26쪽 참조.

28)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쓰레기×사용설명서』(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17) 참조.

의 행동 방향을 고민해보도록 하는 데 **쓰레기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제 행사**를 발굴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구체적 방안으로 네 번째는 체험 위주의 쓰레기 교육이다. 분리 배출의 배경과 이유를 알고 실행에 옮기는 것과 모르고 하는 행위는 차원이 다르다. 전자가 합리적·자율적이라면 후자는 맹목적·타율적이다. 합리적·자율적 행위야말로 일관적이면서 안정적인 태도를 담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이론적 교육보다 직접 보고 느끼는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교육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구성하여 이를 이수할 때마다 포인트 누적을 통해 추후 적절한 보상 시스템을 고안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쓰레기 대란을 넘어설 수 있는 세 번째 대안은 **생활 쓰레기 정책의 다변화 모색**이다. 현재 행정당국은 요일별 배출제만 성공한다면 폐기물 정책 또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하지만 이는 오류이고 착각이다. 현행 요일별 배출제의 초점은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있다. 그런데 이 재활용은 폐기물 처리를 위한 하나의 대안에 불과하고 매립 이전의 마지막 방법일 뿐이다. 그래서 필자는 비 존슨의 쓰레기 제로를 목적으로 한 5R운동을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제안하고 싶다. 5R이란 ①필요하지 않은 것은 거절하기(Refuse) ②필요하며 거절할 수 없는 것은 줄이기(Reduce) ③소비하면서 거절하거나 줄일 수 없는 것은 재사용하기(Reuse) ④거절하거나 줄이거나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재활용하기(Recycle) ⑤그러다 남은 것은 썩히기(Rot)이다. ①, ②단계는 쓰레기 발생을 막아주며, ③단계는 신중한 소비, ④, ⑤ 단계는 폐기물 처리를 다루고 있다.²⁹⁾

물론 현재의 재활용정책을 폐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요일별 배출제를 마치 전가의 보검인 양 여김으로써 이것만 달성되면 된다는 안일한 의식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재활용만이 능사가 돼버리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소비자들은 플라스틱 용기를 재활용수거함에 넣는 것으로 자원낭비에 대한 죄책감, 책임감이 무뎠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활용 대상이므로 맘껏 버리거나 생산하고 판매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심어주어 결국 쓰레기를 양산하는 대량소비의 책임을 피하는 출구가 될 위험이 있다.³⁰⁾ 현행 정책 또한 나름의 장점을 지니고 있기에 이를 지속하는 가운데 **사후가 아닌 사전에** 미리 쓰레기 발생을 차단할 수 있도록 **쓰레기 제로를 표방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정책**을 주문하는 바이다.

쓰레기 대란에 대처하는 마지막 방안은 소유 지향의 사회로부터 존재 지향의 사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조용한 혁명을 이뤄나가자는 것이다. 현대인들 대다수는 점점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지상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사회에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진다. 소유 지향은 돈, 명예, 권력에의 탐욕이 삶의 지배적인 주제가 되어버린 현대 자본주의사회 인간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소유를 위해 끊임없는 소비를 추구한다. 나 = 내가 가진 것 = 내가 소비하는 것이라는 등식에서 자신의 실체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프롬은 소비야말로 현대 ‘잉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소유형태라고 말한다.³¹⁾ 이처럼 현대사회는 소유를 겨냥하는 실존을 당연스레 여기는 곧 소유가 존

29) 비 존슨, 『나는 쓰레기 없이 산다』, 박미영 옮김(서울: 청림Life, 2014), 30-32쪽 참조.

30) 카트린 드 실기, 앞의 책, 259쪽 참조.

재를 지배하는 사회가 돼버린 지 이미 오래다. 이러한 사회에선 아무리 모책을 고안해낸다 해도 쓰레기 감량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존재 지향의 사회다. 소유 지향 사회에서의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에 의존하지만 존재 지향 사회에서의 인간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에 의존한다. 이들은 자기 소유물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믿음과 관계에의 욕구, 관심, 사랑, 주변세계와의 연대감을 중시한다. 이들은 모든 형태의 소유를 기꺼이 포기하려 하며 베풀고 나눠가지는 데에서 우리나라는 기쁨을 누리려 한다. 이들은 모든 생명체와 일체감을 느낌으로써 자연을 정복, 지배, 착취, 약탈, 파괴하려는 목표를 버리는 대신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과 협동하려 노력한다.³²⁾

하지만 모든 형태의 소유를 포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기에 필자는 그 대안으로 자발적 소박함을 권장하는 바이다. **‘자발적 소박함’**이란 끊임없는 소비주의의 강압에 규정되는 삶을 청산하고 가난과 부의 중용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내면적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을 가리킨다.³³⁾ 이를 위한 실천 지침으로 필자는 **‘3덜3더 운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3덜 운동’이란 ‘덜 사고, 덜 갖고, 덜 버리자’라는 것이고, ‘3더 운동’이란 ‘더 간소하고 소박하기, 더 나누고 공유하기, 더 윤리적으로 소비하기’를 가리킨다.

가난도 악덕이지만 사치 또한 악덕이다. 가난은 비자발적이며 심신을 피폐케 하는 반면 소박함은 자발적이며 특별한 힘을 준다. 사치는 필요 이상의 소비를 통해 자원을 소모하지만 소박함은 물적 소비보다 내면의 풍요를 더 추구한다. 제로 웨이스트를 위해선 가난과 사치의 중용인 간소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한다. ‘더 나눈다’는 것은 기부를 의미한다. 기부를 통한 무료 나눔 운동은 이미 존재하는 물건을 더 잘, 더 많이 이용함으로써 소비 증가를 막을 수 있다. ‘공유하기’ 역시 물건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같이 쓰는 것이기에 쓰레기 발생을 사전에 막는 데 기여한다. ‘윤리적 소비’란 사회적 의무를 자각한 소비를 말한다. 민주사회에서 사회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선거와 투표용지라면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를 바꾸는 수단은 소비와 지폐이다. 윤리적 소비는 개개인의 착한 소비를 넘어 기업의 변화까지 요구하는 적극적 사회참여가 된다. 가령 푸드 마일리지와 탄소 배출량을 꼼꼼히 고려한 소비는 환경보호에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31) 에리히 프롬, 앞의 책, 47쪽 참조.

32) 위의 책, 231-33쪽 참조.

33) 김일방, 『환경문제와 윤리』(제주: 제주대출판부, 2019), 278쪽.

VI. 맺음말

현행 요일별 배출제는 이점도 있는 반면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은 미완의 제도라 평가하고 싶다. 분리 배출이 부실하고,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지를 이용하며, 배출시간대를 무시하고 배출하는 행위 등이 여전하다는 점이 이를 반증해준다. 클린하우스의 걸은 깨끗해졌지만 클린하우스의 수거함은 여전히 분리 배출되지 않은 잡동사니들로 썩여 있는 무늬만의 클린하우스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쓰레기량은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률은 70%이상 끌어올린다는 목표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사항들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의 자연환경을 유지 보존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만 관광객을 수용하는 환경총량제를 시행한다.

둘째, 쓰레기에 대한 도민 의식을 새롭게 변혁하고 개선해나간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① '요일별 배출제 홍보대사' 활용하기, ② '요일별 배출제 달력'과 같은 홍보 방법의 다양화, ③ 생활쓰레기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제 행사 발굴하기, ④ 체험 위주의 쓰레기 교육 강화 등을 들고자 한다.

셋째, 요일별 배출제는 사후 대책으로 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한 근원적 대책과는 거리가 멀기에 5R 운동과 같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정책을 고안해나간다.

끝으로 소유 지향의 사회에서 존재 지향의 사회로 옮겨갈 수 있도록 조용한 혁명을 이뤄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3덜·3더 운동'을 펼쳐나간다.

<참고문헌>

- 김일방, 『환경문제와 윤리』, 제주: 제주대출판부, 2019.
- 박지희·김유진, 『윤리적 소비』, 서울: 메디치미디어, 2010.
- 스트레서, 수전, 『낭비와 욕망: 쓰레기의 사회사』, 김승진 옮김, 서울: 이후, 2010.
- 실기, 카트린 드, 『쓰레기, 문명의 그림자』, 이은진·조은미 옮김, 서울: 따비, 2014.
- 엘진, 듀안, 『소박한 삶의 철학』, 김승욱 옮김, 서울: 바다, 1999.
- 유정수, 『쓰레기로 보는 세상』,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6.
- 제주특별자치도, 『2018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2019.
- 제주특별자치도, 『2018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제주특별자치도, 2019.
- 제주특별자치도, 『2019 주요행정통계』,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2019.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 기초 평가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2019.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인구변화』, 제주특별자치도, 2017.
- 존슨, 비, 『나는 쓰레기 없이 산다』, 박미영 옮김, 서울: 청림Life, 2014.
- 페럴, 제프, 『도시의 쓰레기 탐색자』, 김영배 옮김, 서울: 시대의 창, 2013.
- 프롬, 에리히, 『소유냐 존재냐』, 차경아 옮김, 서울: 까치글방, 2006.
- 흠즈, 에드워드, 『102톤의 물음』, 박준식 옮김, 서울: 낮은산, 2013.
- 김은수,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통권 121호, 73-97쪽.
- 제주시 생활환경과 새소식,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범운영 안내」(2016. 11. 24)
- 제주도 환경보전국 보도자료, 「2019년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운영 현황」(2019. 8. 7)
-
- Ohmy News, 2016. 12. 23.
- Ohmy News, 2017. 1. 14.
- Ohmy News, 2019. 7. 2.
- 뉴스제주, 2018. 6. 1.
- 뉴시스, 2016. 10. 27.
- 연합뉴스, 2018. 12. 1.
- 제주의 소리, 2016, 8. 31.
- 제주의 소리, 2017. 1. 6.
- 제주의 소리, 2017. 12. 20.
- 제주의 소리, 2017. 3. 2.
- 제주의 소리, 2017. 3. 6.
- 제주의 소리, 2017. 6. 29.
- 제주의 소리, 2018. 3. 22.
- 헤드라인 제주, 2018. 12. 18.